

경주 해안 동쪽 150km 일본 기업, 가스층 발견

오는 3~7월 시굴조사 예정 한국 권리행사영역 확인 필요

일본 기업이 동해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 기업인 인벡스(INPEX)는 시마네·아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3~7월 시굴 조사를 예정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이 기업은 2010년대 초부터 이어온 일련의 조사를 거쳐 이 지역에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기대하고 시굴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굴 조사를 거쳐 석유·천연가스 상업 생산이 실현되면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벡스를 덧붙였다.

인벡스 관계자는 “2016년에 시굴해서 가스층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스”라며 석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교도 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사는 니가타현 앞바다에 있는 이와후네오키 유전·가스전에서 1990년에 생산을 개시한 후 30여년 만에 일본이 자국 인근에서 새로 가스 개발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굴 장소는 아마구치현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시마네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인벡스가 공표한 자료에 있는 위치도. 시굴할 지점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인벡스 제공

130km 떨어진 지점이며 수심은 약 240m라고 설명했다.

인벡스가 공개한 위치도를 보면 시굴 장소는 경북 경주시 해안에서 동쪽으로 대략 150km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추정된다.

시굴 조사 지점이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질의에 인벡스 관계자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안쪽에 해당한다. (아마구치현과 시마네현 등을 관할하는) 주교구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인벡스가) 광업권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 측당국자들에게 인벡스가 시굴을 추진하는 지점이 한국의 EEZ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혹은 한국이 권리는 행사하

는 영역은 아닌지 물었더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즉각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인벡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유전과 가스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시마네현에서 후쿠오카현에 이르는 지역의 앞바다에 대해 지질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위탁으로 기초 시추를 하는 등 시마네현과 아마구치현 앞바다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경제산업성이 주무 관청인 독립행정법인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시굴 조사 사업비 330억엔(약 3,421억원)의 절반을 출자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통가 해안가 쓰나미 참상 속속 확인

실종됐던 영국 여성 첫 사망자 통신 케이블 절단 구조에 난항

남태평양 해저화산 폭발로 섬나라 통가에서 해안과 주택 등이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쓰나미에 실종됐던 영국 여성이 첫 사망자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가 수도 누쿠알로파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은 수많은 휴양지가 몰려 있는 통가타푸섬 서해안과 누쿠알로파 해변 시설물이 크게 파손됐다고 밝혔다.

또 쓰나미 발생 때 자신의 동물보호소 개들을 구하려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영국 여성 앤젤라 글로버(50)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동생은 글로버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저화산 폭발로 해저 통신케이블이 절단돼 여러 섬의 통신이 어려운 상태여서 정확한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찰기를 보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뉴질랜드 대사관은 섬 전체가 두꺼운 화산재로 덮여 있다며 작은 섬들과의 통신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통가타푸섬 북쪽에 있는 하파이 군도에서 조난신호가 포착됐으며 포노이섬과 망고섬이 특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통가 정부에 따르면 포노이섬에는 69명, 망고섬에는 36명이 살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노루카섬의 시설 수십 곳도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OCHA는 “추가 화산활동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체 피해는, 특히 외곽 섬들의 경우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드 세셀자 호주 국제개발·태평양 장관은 해안을 조사한 호주 경찰이 주택들이 크게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폭발 전인 작년 12월 29일(현지시간)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수도 누쿠알로파 항구 모습(위)과 폭발 후인 18일 항구가 온통 재로 덮여 있는 모습을 촬영한 위성 사진. /맥사 테크놀로지 제공

누쿠알로파 서쪽 21km 히히포반도의 하타푸 비치 리조트의 소유주는 페이스북에서 리조트가 완전히 쓸려나갔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는 구조조직을 가동해 구조 활동에 나섰다.

알렉산더 마테우 적십자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화산재로 오염된 식수 정화와 피

난 쉼터 제공, 흩어진 가족 찾기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이 복구되지 않아 구조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청정국인 통가에 코로나19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피난민 시설도 폭격

10대 자매 등 3명 숨져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세력간 충돌을 피해 도망친 주민들이 거주하는 시설에까지 미얀마군이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북부 카야주 프

루소 구의 피난민 캠프에 미얀마군의 폭탄이 떨어졌다.

한 주민은 최소 두 대의 무장 헬기가 새벽에 폭탄 4발을 캠프에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 캠프에는 지난해 성탄절 전날 최소 35구의 불탄 시신이 발견돼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모소 마을을 비롯해 인근 마을에서 도망친 주민 600명 가량이 머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폭탄이 터지면서 7세와 18세 자매, 50대 남성 등 주민 3명이 숨졌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앞서 하루 전인 16일에도 데모소구 내의 다른 피난민 캠프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3명이 미얀마군이 투하한 폭탄에 목숨을 잃었다고 매체가 주민 무장단체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군정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시민 방위군(PDF)들이 로이코 내에 은신해 있기 때문에 항공기와 포를 이용해 ‘테러리스트’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연합뉴스

기후대응 역행 중국 작년 석탄생산량 역대 최대

지난해 중국 석탄 생산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지난해 12월 석탄 생산량이 3억 8,467만톤에 달해 11월 생산량 3억 7,084만톤을 넘어섰다.

이처럼 지난해 중국의 석탄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 한 해 중국의 석탄 총생산량은 40억 7,000만톤으로 전년과 비교해 4.7%나 늘어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석탄 생산을 늘릴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주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석탄 사용량이 전년과 비교해 9%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IEA는 지난해 각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 석탄에 의한 화력 발전량이 지난해 최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에는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석탄 발전량은 다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번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